

## 35년 제조업 한우물...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

## “아무리 좋은 제품도 5년이면 끝”

##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아이템 수명 주기 갈수록 짧아져  
사업 난항 등 여러 상황 생각하며  
대처 방법·아이템 마련해둬야  
사업 네트워크 중요성도 강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는 지난 4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다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35년째 제조업에 몸을 담고 있다는 강 대표는 금성사(현 LG전자) 인사담당자로 사회에 발을 들였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입사했기에 고향에서는 대단히 출세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직장생활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느껴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그 때는 지금처럼 주52시간 같은 말도 없었다”며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일상에 컴퓨터도 없어서 전부 손으로 썼고 일주일에 3일은 회사에서 잤다”며 직장 생활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사업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충청도 천안쪽에 당장을 빌려 수리하던 당시 인기 있던 ‘골드스타’ 브랜드의 비디오플레이어를 생산·제조해 공급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직원 수는 350명이 됐다. 강 대표는 “그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됐던 시절”이라며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력도 풍부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디



지난 4일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가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를 하고 있다. /ESC 상생포럼

오플레이어의 인기는 자연스레 시들었다. 그 후 그는 무선통신부품을 제조해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외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을 선호했던 구조 탓이다.

강 대표는 고민 끝에 홍콩의 유명한 잡지에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에게 주는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꾸준히 광고를 내보내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했고 무선호출기(일명 삐삐)를 만들어 수출했다.

삐삐가 인기를 끌면서 삐삐의 원자재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강 대표는 1년 치의 원자재를 일본에 주문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삐삐의 인기는 휴대폰의 등장과 함께 단번에 사그라들었다.

강 대표는 “삐삐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고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무 자릿수 사라졌다”고 말했다.

시련이 찾아왔지만 강 대표는 과감하게 삐삐를 접고 휴대폰 충전기로 사업을

전환했다. 그는 “삐삐에서 휴대폰 충전기로 전환하는데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가늘더라도 버티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 대신 복수로 갈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도 건넸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갈수록 주기가 짧아져 그게 무너지면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대표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아무리 좋아해도 5년이 지나면 싫증을 느낀다”면서 “7~8년에 한 번씩은 본인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다고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 대표는 사업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89년에 8명이 이업종교류회를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는 7000여개의 회원사와 25만 명의 조합원이 소통하고 있다.

30여명이 모이는 단위교류회에는 각기 다른 업종만 들어간다. 경쟁사가 없으니 자기 사업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이업종교류회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제단체가 없다”면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근로자와 성과공유 中 小 本 격 발 굴

## 중기부 “세제혜택 별도 추진”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간 성과공유를 위한 제도가 본격 시동을 걸게됐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급 등 특별급

여는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 시행될 제도를 통해 중기부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해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세제지원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윤범수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마트 자체브랜드 ‘무선 선풍기’ 출시

이마트가 오는 7일부터 전국 100개 이마트 점포와 일렉트로마트, 이마트 물에서 자체브랜드 무선 선풍기 ‘리빙홈 코드리스 팬’을 출시한다고 6일 전했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행사 카드로 구매 시 20% 할인 행사를 펼친다. /연합뉴스

## 시몬스, 고양 스타필드에 ‘팝업 스토어’

이달 17일까지 진행

시몬스는 오는 17일까지 경기 고양 스타필드에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몬스 측대는 행사 기간 동안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를 비롯해 시몬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퍼니처 등 베스트셀링 제품들을 선보인다.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 대상으로 시몬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특별한 가격 혜택과 선물도 제공한다.

뷰티레스트 컬렉션은 POSCO의 경강

선만을 이용한 시몬스 고유의 포켓프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구현한다. 또한 탄력, 지지력, 형태가 다른 포켓프링을 사용자마다 다른 신체 곡선,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해 조합하고 배열하는 독보적인 ‘조닝 시스템’과 50여종의 내장재를 다양하게 조합·배치하는 ‘레이어링 기술’은 섬세한 지지력과 시몬스 고유의 안락함을 형성한다.

아울러 포켓프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최고 품질과 디자인을 입은 매트리스’로 소비자 감성까지 충족시키며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김승호 기자

## 가스공, 정보보안 혁신 위해 팔 걷는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를 자율 보안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정보보안 관리체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서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보안 담당부서 ‘통합보안처’를 안전기술부사장 직속 부서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올해를 ‘자율 보안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하며 정보보안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립한 ‘정보보안 분야 혁신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정보보안을 규제에서 경영전략으로 인식을 전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정보보안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도 예정됐다. 정보보안 우수사례 및 보안 슬로건 공모전을 열고 우

‘자율 보안문화 정착의 해’ 선포  
현장 보안 강화활동 추진

수 직원에게 포상해 정보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밖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운영 강화와 전국 사업소 무선 침입방지 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정보보안 전담 인력 배치 등 현장 보안 강화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월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조직, 인사, 전략 등 전 분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래 지향적인 혁신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한길 기자 og@

## 이노비즈協,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해 3492명 추가 지원

이노비즈협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3492명을 추가 지원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을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 근속을 한 뒤 지원받게 된다. 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건당 연간 최대 90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3년형이 새로 생기면서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가운데 2년형에 가입했다라도 3년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생애최초취업자 등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는 특히 많은 규모의 인원을 채용 연계하는 수도권 참여 기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기업)관리시스템’도 기업들에게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6월 중순 이후엔 근로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30초 만에 세척 ‘뚝딱’... ‘휴롬디바’ 인기

휴롬 원액기 신제품

휴롬이 세척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출시한 ‘휴롬디바’ (사진)가 인기가.

6일 휴롬에 따르면 휴롬 디바는 매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쉽고 편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품이다. 이를 위해 구조를 단순화했다.

기존 원액기의 촘촘한 미세망대신 2개의 필터를 사용해 찌꺼기가 끼지 않아 세척하기 훨씬 쉽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필터 세트를 분리해 물에 헹구기만 하면 30초 안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 게다가 날카로운 칼날이 없



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씻을 수 있다. 본체 상단부와 드럼 하부의 흡을 끼우기만 하면 한번에 조립할 수 있어 간편하다. 두 개의 투입구가 적용된 듀얼호퍼는 기존 원액기보다 넓어진 사이즈로 크기와 형태에 따른 재료 투입이 편리해졌고, 안전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김승호 기자